

영광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 최종 확정

해수부 사업대상지 선정 160억원 투입 2025년 준공

영광군이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을 확정하고 굴비산업의 활로를 열었다.

영광군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건립 사업' 최종 사업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건립 사업은 영광 특산품인 굴비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굴비산업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한다.

영광군은 2017년부터 참조기 해상 가두리 양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남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 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강종만 영광군수가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지원을 요청한 결과 사업이 선정됐다.

영광군은 올해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4

년 6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건립에 160억원이 투입되는 센터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에는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에는 스마트양식 기술인 순환여과시스템(RAS)과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양식 기술인 K-스마트 양식기술이 도입된다.

영광군은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참조기 양식·가공·유통·수출단지, 종자, 연구개발(R&D), 창업 교육, 전문 인력양성 등 연관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굴비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속가능한 굴비사업 육성을 위해 수산분야 최우선 공약으로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를 건립하고 수산물 유통·가공 관련 기업을 적극 지원해 양식생산·가공·유통·수출을 아우르는 윈윈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속가능한 굴비사업 육성을 위해 수산분야 최우선 공약으로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를 건립하고 수산물 유통·가공 관련 기업을 적극 지원해 양식생산·가공·유통·수출을 아우르는 윈윈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이 오는 2025년까지 160억원을 들여 건립 예정인 '기후변화 대응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조감도. <영광군 제공>

곡성군 청년 문화활동 지원 1995년~2004년생 20만원

곡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문화활동을 위해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4월3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지역으로 기재돼 있어야 하며 1995년~2004년도 출생 청년이다.

지난 2월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지난 2월에 신청했으나 거주 기준 부적합으로 제외됐던 청년 중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이 이번엔 참여하면 된다.

다만 복지포인트 및 복지카드 등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근무자,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수당 대상자는 제외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1만원을 제외한 9만원만 지급한다.

발급받은 문화복지카드는 전남 지역에서 도서 구입, 체육시설, 학원 수강, 공연 관람, 숙박시설 등 문화복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산강 간척지 배수 개선사업

영산강 간척지에서 처음 배수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산이2-1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최근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배수 개선사업은 영산강 대단위 간척지에서 추진된다.

상습적으로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산이2-1지구는 특화작물 재배지역이다. 농경지와 염암호가 맞닿아 있는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제때 배수가 어려워 집중호우 때는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배수 개선사업에는 총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된다. 배수장 1개소와 1.0km 길이 배수로 등이 구축된다.

여수산단에 1700억 친환경 접착 소재 공장

디렉스폴리머 연 4만 규모 준공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1700억원을 투입한 친환경 접착 소재 생산 공장이 건립됐다.

여수시는 지난 6일 DL케미칼의 자회사인 '디렉스폴리머'가 APAO(무정형 폴리 알파 올레핀)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고 9일 밝혔다.

'디렉스폴리머'는 DL케미칼의 자회사이자 외국인 투자 합작기업이다.

공장에서는 연간 4만t의 APAO를 생산하게 된다. APAO는 열로 녹여 붙일 수 있는 접착제로 자동차 내·외장재 등 각종 산업용품에 사용된다. 연

간 시장 규모는 6% 이상 성장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 힘쓰고 있는 여수시는 여수산단 DL케미칼 부지에 APAO 공장을 짓기로 하고 2021년 10월 전남도·DL케미칼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종기 여수시 부시장은 "디렉스폴리머가 여수를 거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지역민과 산단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어지도록 투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여수산단에서 열린 '디렉스폴리머' 친환경 접착 소재 생산 공장 준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구례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구례군이 12일부터 12월말까지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군 전산교육장과 산동면 나들이장터 두 곳에서 진행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4회)는 군 전산교육장(구례읍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디지털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은 산동면 나들이장터(상인회사무실 2층)에서 스마트스토어 등 특화 교육을 진행한다.

군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실생활 활용 중심의 교육과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대응하는 챗(Chat)GPT 등 인공지능 과 정도 함께 교육한다.



현대삼호중공업과 영암군보건소가 지난 6일 회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불타는 복싱' 1기 1회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현대삼호중복싱으로 직원 건강 챙긴다

영암보건소와 매월 프로그램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복싱을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직원 건강 증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영암군보건소는 지난 6일 회사 지인관에서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불타는 복싱' 1기 1회차 수업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과 영암군보건소가 협력해 진행되는 '불타는 복싱'은 전문 운동 강사를 초빙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다.

교육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기수당 30명

(직영 15명, 협력사 15명)씩 총 3기수 90명을 선발했으며, 오는 6월까지 매월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개선·보완을 거쳐 하반기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은 회차당 1시간씩 총 2회차로 구성되며 ▲심뇌혈관 관리 방법 교육 ▲혈압 및 혈당 측정 ▲운동 강습 등이 이뤄진다.

한 교육 참가자는 "50대에 접어들면서 혈압이 높아져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운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임직원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